

## 18세기 가사를 통해 본 경향사족간 의식의 거리

—향촌문제를 중심으로

안혜진\*

<차 례>

- I. 들어가며
- II. 18세기 사대부 가사에 나타나는 향촌의 모습과 그 의식 양상
- III. 18세기 경향사족간 삶의 거리와 그 의미
- IV. 마무리하며

### <국문초록>

본고에서는 향촌문제를 중심으로 18세기 향촌사족 가사와 경화사족 가사를 대비해 보고, 작품에 나타나는 차이가 어디에서 기인하는지 당대의 상황과 관련하여 고찰해 보았다.

향촌사족 가사에서는 현실비판 가사를 통해 향촌문제를 단독적으로 다루고 있다. 향촌의 피폐한 현실을 고발하면서, 향촌문제가 개인적 차원이 아닌 제도적인 차원에서 해결되어야 할 것임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또한 수평지향적인 대민의식을 보여준다.

반면 경화사족 가사에서는 기존 유형의 계승하여 향민들의 문제를 부분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포착된 문제들도 향촌 공동체의 문제로서가 아닌 개인적 차원의 것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해결도 매우 소극적이다. 향민에 대한 시선 역시 하향적인 성향이 강하다.

향촌사족과 경화사족의 가사가 각각 이러한 특성을 보이는 것은 이들의 삶의 토대가 확연히 달랐던 것과 긴밀한 관련이 있다. 삶의 환경이 철저히 달랐기에 관심 대상은 물론, 그 의식에도 거리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주제어** 향촌사족, 경화사족, 향촌, 대민의식, 삶의 토대

\* 아주대 강사

## I. 들어가며

흔히 19세기는 ‘민란의 시대’라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민란이 빈번하게 일어났던 시기이다. 특히 1862년에 발발한 임술농민항쟁은 2월 4일 진주와 인접한 단성현에서 시작된 이후 경상도·전라도·충청도의 삼남지방을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70여 개 읍에 걸쳐 발생한 대규모의 민란이었다.<sup>1)</sup> 임술농민항쟁의 전개 과정을 살펴보면 몇 가지 대조적 국면들을 발견하게 된다. 우선 농민들의 움직임이 점차 조직화, 대규모화 되어가는 등 이전의 난에 비해 상당한 발전을 보이는 반면 중앙 정부가 이에 대응하는 태도는 한심할 정도로 구태의연하다. 주모자의 색출과 처벌 등 난의 진압에만 급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난이 발생한 지 수개월이 지난 뒤에야 그 원인이 삼정문란에 있음을 겨우 짚어내고 있는 것은 경악을 금치 못하게 한다. 이는 당시 정부의 향촌 실정에 대한 파악이 얼마나 부족했는가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한편 농민들에 대한 중앙 정부의 고압적 자세는 민란에 가담하고 있는 일부 향촌사족들의 동향과도 뚜렷한 대비를 이룬다. 사족의 신분이지만 향민을 대변하며 이들과 함께 행동했던 향촌사족들의 모습은 형식적인 선무작업과 진압으로 대응했던 중앙 관료들과는 현격한 거리를 보인다. 19세기 중앙정부 관료들이 경화별얼 출신이었음을 상기할 때<sup>2)</sup>, 중앙 정부 관료와 향촌사족들이 보이는 이러한 차이는 곧 경화사족과 향촌사족의 것으로 치환이 가능하다. 곧 경화사족들이 향촌의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1) 오영교, 「1862 농민 항쟁 연구 I」, 『조선후기 사회사 연구』, 해안, 1993, 271쪽.

2) 순조-고종조 시기는 별얼 독점기로 파악된다. 별얼의 견제책을 추진하였던 영조와 인조가 죽고, 순조가 즉위하면서 노론계 별얼 가운데 소수 외척가문이 정국을 독점하였다. 따라서 과거는 다시 별얼들에 의해 독점되었으며, 관직 또한 별얼들이 장악하였다. 차장섭, 『朝鮮後期閥閥研究』, 일조각, 1997, 185-186쪽.

못한 채 일시적인 해결에만 급급했다면, 향촌사족들은 향민들의 입장에서 향촌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한 것이다.

동일한 신분계층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차이가 나타나는 것은 어떠한 연유에서인가? 향촌사족들의 민란 가담에 대해 흔히 이들이 몰락 사족층이었다는 사실을 거론한다. 사족이라 해도 그들의 현실적 처지가 농민들과 다름없었기 때문에 이해관계를 같이 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 전라도 지역 농민봉기의 주도자가 대개 재지세력인 사족으로 나타나고 있으며<sup>3)</sup>, 중앙 정부에서도 사족 중 재지명망가를 주도층으로 주목했던<sup>4)</sup> 사실들은 경제적 몰락만으로는 향촌사족들의 민란 가담 이유를 완전히 설명할 수 없음을 말해준다. 따라서 이에 대한 더욱 설득력 있는 해명이 요구된다. 또한 조선후기 수령권의 강화를 통해 중앙의 지방통치가 한층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대와 달리 당대 중앙관료들이 향촌 실정에 유달리 둔감했던 원인에 대해서는 특별히 거론된 바가 없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깊이 있는 고찰이 요구된다. 아쉽게도, 기존의 연구에서는 난의 주도 세력이나 이를 둘러싼 각각의 집단에 대한 분석에 논의가 집중되고<sup>5)</sup>, 사족층 내에서 나타나는 이질적 동향과 그 원인에 대해서는 거의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아 이에 대한 적절한 답을 구하기가 어렵다.

18세기 사대부 가사는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주목된다. 주지하듯, 본격적인 농민항쟁은 19세기에 일어나고 있지만 실상 향촌사회의 동요와 해체는 18세기에 시작된 것으로 지적된다. 이는 19세기의 상황이 18세기와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18세기의 상세한 규명이 19세기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시켜 준다. 게다가 바로

3) 오영교, 「1862년 농민항쟁 연구 II」, 『조선후기 사회사 연구』, 혜안, 1993, 348쪽.

4) 오영교, 앞의 책, 288쪽.

5) 고석규, 『19세기 조선의 향촌사회 연구』,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8.

이 시기 사대부 가사는 19세기 사대부 동향을 설명할 수 있는 중요한 전조를 그대로 보이고 있어 그 시사하는 바가 크다. 18세기 사대부 가사에서는 작자층이 향촌사족과 경화사족으로 분화되고 있으며, 그 결과 작품 세계도 각기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향촌문제 있어 변별되는 국면들이 선명하게 포착된다는 점에서 주시할 필요가 있다.

경화사족들이 기존의 유형을 답습하는 가운데 향촌의 모습을 부분적으로만 담아내고 있는 것에 비해 향촌사족들은 현실비판 가사라는 새로운 유형을 마련하여 향촌의 피폐한 현실을 한층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다. 또한 향촌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 이를 해결하려는 방식, 그리고 향민에 대한 태도 등에서도 서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더욱이 현실비판 가사의 경우, 19세기 민란의 현장에서 유통된 흔적이 찾아진다는 점<sup>6)</sup>에서 18세기 향촌사족의 동향이 19세기 향촌사족의 민란 참여를 보다 설득력 있게 설명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촌문제에 집중하여 경화사족과 향촌사족의 가사를 본격적으로 조명한 연구는 아직 시도되지 않고 있다. 이는 계층 분화에 주목해 사대부 가사의 동향을 살핀 연구가 이제야 그 기반을 확립해 가고 있는 연구현실에 기인한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연구자들의 관심이 한층 더 적극적으로 요청된다. 다행히 향촌사족들의 향촌인식에 대한 논의는 현실비판 가사를 중심으로 비교적 상세하게 이루어진 편이다. 작품 전반에 대한 연구, 각 개별 작품론 등을 통해 현실비판 가사 작자층의 특성과 가사에 투영된 의식 양상 등이 논의되었다.<sup>7)</sup> 특히 한시와의 비교를 통한

6) 고순희, 「민란과 失傳 현실비판가사」, 『한국고전연구』 5집, 1999, 235쪽.

7) 현실비판 가사에 대한 성과로는 다음의 연구들을 들 수 있다.

고순희, 『현실비판가사 연구』, 이화여대 박사논문, 1990.

———, 「민란과 失傳 현실비판가사」, 『한국고전연구』 5집, 1999.

———, 「〈합강정가〉의 작품세계와 역사적 성격」, 『비교한국학』 6집, 국제비교한국

논의는 가사의 공동체 지향적인 성격을 가늠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준다.<sup>8)</sup> 한편 경제의식의 차원에서 향촌사족 가사와 경화사족 가사를 비교한 연구<sup>9)</sup>가 확인되나, 향촌문제에 집중한 본격적 고찰이 아니라는 점에서 실제 작품을 토대로 한 더욱 정밀한 논의가 요구된다. 경화사족 가사의 경우, 계층성에 주목한 연구 자체가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 향촌민에 대한 인식을 다룬 논의 역시 19세기 구강의 <북새곡>과 같은 특정 작품에 국한되어 있어 연구의 필요성이 거듭 제기된다.<sup>10)</sup>

따라서 본고에서는 선행연구 성과를 적극 수용하되, 향촌문제를 중심으로 18세기 가사에서 경화사족과 향촌사족들이 각각 어떠한 동향을 보이고 있는지 실제 작품<sup>11)</sup>을 토대로 살펴보고, 그 차이가 어디에서 기인하는지 당대의 상황을 통해 규명해 보고자 한다. 이는 동시기를 살고 있었던 사대부 계층 내 존재했던 거리를 구체적으로 보여줄 것이며, 18세기 사대부 가사의 작품세계를 보다 섬세하게 파악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나아가

---

학회, 2000.

김용찬, '갑민가'의 주제에 대한 재검토, 『어문논집』 33집, 민족어문학회, 1994.

이형대, 18세기 전반의 농민현실과 '임계탄', 『민족문학사연구』 22호, 민족문학사학회, 2003.

정홍모, 「향산별곡을 통해 본 19세기 초 민란 가사의 한 양상」, 『한국시가연구』 창간호, 한국시가학회, 1997.

8) 고순희는 현실비판 가사의 의의를 밝히는 작업에서 가사가 한시 장르와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설명하고 있다. 고순희, 『현실비판가사 연구』, 이화여대 박사논문, 1990.

9) 안혜진, 「18세기 향촌사족 가사 연구」, 이화여대 박사논문, 2005.

10) 이형대, 「북새곡의 표현방식과 작품세계」, 고한연 편, 『한국시가문학의 탐구』, 집문당, 1995.

11) 대상 자료는 다음을 참고하였다.

소재영, 『諺詞』 연구, 『民族文化研究』 제21호, 1988.

이상보, 『18세기 가사전집』, 민속원, 1991.

윤성근, <合江亭歌研究>, 『어문학』 18호, 한국어문학회, 1968.

임형택 편, 『옛 노래, 옛 사람들의 내면 풍경: 신발굴 가사 자료집』, 소명, 2005.

18세기와 19세기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가운데 19세기의 사회적 정황을 설명하는 데에도 일정 정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 II. 18세기 사대부 가사에 나타나는 향촌의 모습과 그 의식양상

### 1. 향촌 문제의 단독적 제시와 수평지향적 대민의식: 향촌사족 가사

18세기 향촌사족 가사에서는 현실비판 가사라는 별도의 유형을 마련하여 향촌의 문제를 단독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익명의 작품인 <임계탄>, <갑민가>, <합강정선유가> 등에서는 향촌 공간을 초점화하여 삼정의 문란과 집권층의 탐학에 시달리는 향민들의 고통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 <임계탄>의 경우, 거듭된 자연재해로 인한 피폐해진 향촌의 모습과 함께 환곡제도의 폐해를 주로 다루고 있으며, <갑민가>는 관북지방을 배경으로 군정의 모순을 고발하고 있다. <합강정선유가>의 경우, 관료들의 사치, 유흥으로 인해 각종 수탈에 시달리는 향민들의 고초를 절절히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향촌사족 가사에서는 현실비판 가사를 통해 향촌이라는 특정 공간을 배경으로 그 피폐한 실정과 이로 인한 향민들의 고통을 생생하게 그려냄으로써 향촌이 안고 있는 문제를 심각하게 제기한다. 또한 수취제도의 모순이나 집권층의 부정부패를 그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어 향촌 사회의 문제가 개인적 차원이 아닌 사회적 차원에 해결되어야 함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아울러 향민의 위치에서 향촌 사회의 폐해를 고발함으로써 향민의 목소리를 적극 대변하고 있다.

<갑민가>의 경우, 향촌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는 제도적 모순에서 기인한 것으로 향민들의 교화만으로는 결코 해결될 수 없는 것임을 분명히 밝

히고 있다. 갑산민이라는 한 개인의 삶을 통해 향민들의 향촌 이탈의 근본적 원인이 수취제도를 통한 가중한 수탈에 있음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킨다.

1) 츠라리 네 스던 곳의 아모케나 썰희 박여/ 칠팔월(七八月)의 치숨(採蓼)하고 구십월(九十月)의 돈피(獬皮) 잡아/ 공치신역(公債身役) 갑흔 후의 그 남저지 두엇드ㄱ/ 함흥북청(咸興北靑) 홍원(洪原)장스 도라드러 줌민(潛賣) 흘 제/ 후ㄱ(厚價) 받고 파르니여 살기 도흔 너른 곳의 가스던토(家畝田土) 곳처 스고 가장줍물(家藏什物) 장든 호여/ 부모처즈(父母妻子) 보전(保全)호고 새 즐거물 누리려문

2) 어와 생원인디 초관(哨官)인지 그더 말슴 그만 두고 이 너 말슴 드러보소...(중략)... 이 너 또흔 갑민(甲民)이라 이 짜의셔 성장(生長)하니 이 씨 일을 모를소나 막중 변디(邊地) 우리 인생(人生) 나르 빅성(百姓) 되여 나서 / 군스(軍士) 슬트 도망(逃亡)호면 화외민(化外民) 되려니와/ 혼 몸의 여러 신역(身役) 무드가 흘 세 업서/ 또 금년니 도르오니 유리무덤(流離無定) 호 노미라

<갑민가>의 서사에 해당되는 부분이다. 1)에서 유망하는 갑산민에게 원래 터전에서 자신의 처지에 최선을 다하며 살 것을 권고하는 생원의 태도는 다분히 교화적이다. 직분을 충실히 수행한다면 생활의 안정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는 훈계의 말로 갑산민이 향촌을 떠나는 것을 막으려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생원의 태도는 향민을 교화시킴으로써 향촌을 안정시킬 수 있다는 사족들의 일반적인 시각을 대변한다. 또한 갑산민의 노력만을 촉구하고 있는 것에서 알 수 있듯, 향촌문제의 해결을 오로지 개인적인 차원에만 국한시켜 접근하고 있다. 그러나 생원의 말이 끝나자마자 이어지는 2)의 갑산민의 항변은 향촌 유리가 선택이 아니라 필연적인 것임을 확

인시켜 준다. 다름 아닌 군정의 폐해가 그를 더 이상 향촌에 머물지 못하게 한 것임을 분명히 지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또한 향촌사회의 동요가 개인적 차원이 아닌 사회적 차원에서 해결되어야 하는 것임을 인식시켜 준다. 이후 결사에서 갑산민은 내년에 생원 또한 자신처럼 유리하게 될 때 자신이 한 말을 깨닫게 될 것이라며 이야기를 마무리를 짓는다. 이는 향촌의 문제가 향민에게 있는 것이 아님을 다시 한 번 환기하는 동시에 제도적인 개선이 없는 한 향민들의 향촌 이탈과 유리가 계속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집권층의 학정과 가혹한 수탈이 향촌사회를 붕괴시키는 가장 큰 원인이라는 것은 <임계탄>이나 <함강정선유가>에서도 동일하게 지적된다. 향민들이 관리들의 만행으로 겪는 갖은 고초를 상세히 묘사함으로써 집권층의 폐해를 상세하게 보여준다. 그런데 이러한 관료들의 부정부패와 수탈의 실상을 바로 향민들의 입장에서 고발하고 있어 주목된다. 즉 향민들의 위치에 서서 그들을 대신해 집권층의 잘못을 통렬하게 비판하고 있다.

1) 아무리 연흉(連凶)인들 상납(上納)을 끊칠쏘냐/ 행관(行關)이 연속(連續)하야 각항(各項)반자 정지(停止)할라/ 대동(大同) 결역미(結役米)와 환상(還上) 결량본전(乞糧本錢)/ 각색보미(各色保米) 운역(運役)과 통호역(統戶役) 향도역(香徒役)을/ 구별구별(區別區別) 별음(別音)하라 일시(一時)의 독봉(督捧)하니/ 이리하야 못 하리라 별차검독(別差檢督) 내여코야/ 별차검독(別差檢督) 주인사령(主人使令) 약정면장(約正面長) 안동(眼同)하/ 포효(咆哮)하는 호령(號令)소리 여염(閭閻)이 진동(振動)한다/ 관령(官令) 뒤편(背)명분(名分)을 돌아보라/ 내정(內庭)의 작난(作亂)하니 임진왜란(壬辰倭亂) 이렇던가/ 호수차지(戶首次知) 면임(面任)차지 이정(里正)차지 일족(一族)차지/ 다 잡아 수금(囚禁)하고 성화(星火)로 독납(督納)하니/ 영가(永嘉)적 시절(時節)인가 하담(荷擔)은 무슨 일고/ 어와 난리(亂離)로

## 다 이 난리(亂離) 뉘 당(當)하리 - &lt;임계탄&gt;

2) 불상한 저 민전(民田)의 조분 질 날니거다/ 각읍관인(各邑官人) 동역시(童役時)의 편박(便泊)조차 무삼 일고/ 허다(許多)한 관인 적기 디소촌(大小村)의 분정(分定) 하니/ 사방부근(四方附近) 십니니(十里內)여 계건(鷄犬)이 멸족(滅族)커다/ 부자(富者)는 가(可)커니와 가연(可憐)허다 빈자(貧者)로다...(중략)... 촌계(村鷄)도 탕진(蕩盡)허고 호슈렴(戶收斂) 허단 말가/ 디호(大戶)의 양(兩)이 남고 소호(小戶)의 육칠전(六七錢)이라/ 이 노름 다시 하면 이 빅성이 못살 거다/ 한 사람의 호사(豪奢)로서 몇 빅성(百姓)의 날니넝고/ 낙토(樂土)의 싱긴 인상(人生) 티평성티(太平盛代) 죠허여 / 안토안업(安土安業) 허옵셔니 할 길 업서 유리(遊離)허너/ 가정전지(家莊田地) 진믹(盡賣)하야 어니 말로 갈넝고 - <함강정선유가>

1)에서는 계속된 흉년 속에서도 군역을 비롯한 각종 세금에 시달리는 향민들의 모습이 세세하게 진술되고 있다. 세금의 독촉하는 소리가 온 마을에 떠들썩하다. 징수를 앞세우는 관리들은 여염집은 물론이요, 내정을 침탈하는 것도 서슴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세금을 제 때에 거두지 못한 사람들을 다 잡아들어 징수를 촉구하니, 이러한 폭력에 견디지 못한 백성들이 유랑의 길로 나서고 있다. 시적 화자는 생존의 자체가 문제되었던 임진왜란보다 지금의 상황이 더 살기 어렵다는 말로 사태의 심각성을 환기시키고 있다. 이런 난리를 그 누가 당해낼 수 있겠냐는 시적 화자의 안타까운 목소리는 이 같은 상황 속에서는 도저히 살 수 없다는 백성들의 심정을 온전히 대신하고 있다. 2) 역시 집권층의 수탈이 백성들을 향촌 밖으로 내몰고 있음을 말하고 있다. 감사의 잔치 비용을 대느라 한 마을이 파탄이 나고 있다. 감사의 향락을 위한 기증한 수탈에 견디다 못한 백성들은 이제 고향을 버리고 유랑의 길로 나서고 있다. ‘이 백성이 못 살겠다’는 말은 시

적 화자가 백성들과 밀착되어 있음을 선명하게 보여준다. 백성들의 문제를 자신의 영역으로 이끌어와 그 마음을 대신 발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향민들의 입장에서 향촌의 실정을 바라보고 있음은 <갑민가>에서 더욱 뚜렷하게 확인된다. <갑민가>의 시적 화자가 군역으로 인한 폐해를 직접 겪는 당사자라는 점에서 바로 피지배층의 목소리로 현실의 모순을 고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사족의 신분에서 탈피해 향민들의 위치에서 향촌의 문제에 접근하고 있다.

애슬프다 내 시절의 원슈인(怨讐人)의 모휜(謀害)로서 군스강정(軍士降定) 되단 말궤/ 내 혼 몸이 허러나니 좌우전후(左右前後) 수드일궤(數多一家) 츠츠충군(次次充軍) 되거고야...(중략)... 여러 슝름 모든 신역(身役) 내 혼 몸에 모도 무니...(중략)...집을 츠자 드러가니 혼비백산(魂飛魄散) 반(半) 주검이/ 언불출구(言不出口) 너머지니/ 더운 구돌 으른목의 송장갓치 누엇드궤/ 인스수습(人事收拾) 호은 후의 두 발 싯홀 구버 보니/ 열 궤락이 간 디 업니...(중략)...슴슈각딘(三水各鎭) 두로 도라 니십늑당(二十六張) 돈피(狍皮) 스니/ 십여일(十餘日) 장근(將近)이라 성화(星火)궤뵈 관궤분부(官家分付)/ 츠디(次知) 즈브 궤도왔니 불상홀스 병(病)든 텃(妻)는/ 영어둥(圍圍中)의 더디어서 결항치스(結項致死) 호단 말궤/ 니 집 문던(門前) 도라드니 어미 불너 우는 소리/ 구텃(九天)의 슝못호고 의디업슨 노부모(老父母)는/ 불성인스(不省人事) 누어시니 기텃(氣絶)호은 텃시로드 - <갑민가>

위에서 갑산민은 과거에는 사족이었으나 신분이 강등됨으로써 일반 백성으로 전락된 신세이다. 때문에 그 역시 군역을 피해갈 수 없다. 자신과 친척들의 몫으로 할당된 군역을 감당하기 위해 돈피 사냥에 나서지만 굶주림과 추위에 시달리다 간신히 목숨만 건지게 된다. 동상으로 사라진 열 개의 발가락을 자신의 눈으로 확인하는 모습은 비참하기 이를 데 없다. 게

다가 이는 단순한 신체적 훼손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는 곧 있을 가족의 파탄을 예고하는 것이기도 하다. 갑산민이 돈을 마련하러 간 사이, 세금을 재촉하는 관리들의 횡포에 아내는 자결하고, 이로 인해 온 집안이 풍비박산이 되어 버린다. 이러한 상황이 제3자가 아닌 실제 일을 겪은 당사자의 목소리로 전달되기에 그 참담함이 더욱 실감나게 느껴지며, 호소력도 한층 강화되고 있다.

이처럼 현실비판 가사를 통해 향촌의 피폐한 실상을 살살이 그려내며 문제의 심각성을 제기하는 것에서 향촌 문제를 적극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려 했던 향촌사족들의 의지와 노력을 뚜렷이 확인할 수 있다. 특히 향민의 입장에서 향촌의 처참한 실상을 고발하는 태도는 향민들에 대한 향촌사족들의 의식이 재상자(在上者)로서의 지시하달적 위치에서 벗어나 한결 수평적인 방향으로 전개되어 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 2. 하층민 삶의 부분적 포착과 하향적 대민의식: 경화사족 가사

18세기 향촌사족 가사에서 향촌의 문제가 현실비판 가사라는 특정 유형을 통해 단독적으로 거론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경화사족 가사에서는 향촌문제에 대한 심각한 인식이나 적극적인 해결 태도 등을 찾아보기가 어렵다. 부분적으로나마 향민들에 대한 인식이 표출되고 있는 작품으로 정언유(鄭彦儒)의 <탐라별곡(耽羅別曲)>과 이운영(李運永)의 <초혼사(招魂詞)>, <순창가(淳昌歌)> 등<sup>12)</sup>을 들 수 있는데, 향촌이라는 일정 공간의 구성원인 향민이라기보다는 신분적 구별에 의한 하층민, 즉 일반 백

12) 정언유(鄭彦儒, 1687-1764)는 온양군수, 제주목사, 세자시강원 필선, 영해 부사 등을 거쳐 제주 목사를 지낸 다음 형조, 호조 참판 등을 역임한 중앙 관료이다. 이운영(1722-1794)은 전형적인 경화사족으로서 그의 형 이운영(李胤永)은 산수화와 인물화에 뛰어난 기량을 갖고 있었으며 고서화와 이기(彝器)를 소장하고 즐겼던 예술품 소장가로 이름났었다.

성으로서의 대상인식이 강하다. 또한 이들을 바라보는 시각에는 관인의 입장이 투영되어 치자(治者)로서의 하향적 시각을 확고히 유지하고 있거나 혹은 목민관의 시선이 제거되더라도 일정 거리를 반드시 유지하고 있어 향촌사족들의 것과는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정언유의 <탐라별곡>은 관인으로서의 대민의식을 분명히 보여주는 작품이다. 이는 정언유가 제주목사로 부임하는 것을 계기로 지은 기행가사로, 순력(巡歷) 길에 대면했던 제주도 향민들의 모습이 자못 자세하게 서술되어 있다.

巡歷 길 밭비 나서 海方도 둘러보며 풍속도 살펴 보니/ 어엿불스 우리  
 百姓 무삼 일노 偏苦하여/ 衣食이 艱窘하니 興味가 잇슬손가/ 八陽足踏  
 겨우 하야 薄田을 耕作하니/ 자른 허미 적은 보십 辛苦히 매갓구어/ 五六月  
 盡力하여 西城을 바라더니/ 造物이 兇劇하고 天時도 그릇되여/ 惡風과  
 甚한 霖雨 히히마다 孔極하니/ 田畝를 도라보면 兵馬로 짓발분 듯/ 各穀  
 을 둘러보면 鐵鞭으로 짓찧난 듯/ 남은 이삭 주어니니 빈 썩풀 썩이로다/  
 무엇으로 公債 잡고 어지 구러 살어갈고/ 거리거리 모단 飢民 駕輻 잡고  
 일는 말이/ 설러울산 우리 性命 나라헤 달녋스니/ 流民圖 嵬겨다가 人君  
 기신 더 알외고져/ 가죽옷 풀戰笠이 이 무산 衣冠인고/ 모밀밥 橡實粥이  
 구 무산 음식일고/ 歲歲에 國恩 입어 羅鋪移轉 虛費하니/ 請粟도 낫치 업  
 고 生計도 茫然하다/ 牧子一族 鮑作구실 이에서 더 설우며/ 船格의 貿易  
 무리 그 안이 難堪할가/ 滄溟이 限隔하고 邦禁이 嚴截하니/ 살 곳에 못 가  
 기난 紇干山언 시갓도다

자연재해로 인해 힘들게 농사지은 것도 거둘 것이 없어 살아갈 길이 막막한 향민들이 시적 화자의 가마를 부여잡으며 자신들의 상황을 유민도에 담아내어 임금께 전해달라며 호소를 하고 있다. 이에 시적 화자는 이들의 요

구에 응답이라도 하듯 이들의 모습을 상세히 묘사한다. 가족옷에 풀전립, 메밀밥과 상수리열매로 쏘 죽은 백성들이 기본적인 의식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살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또한 먹고 살 길이 가축을 돌보거나 건어물을 만들며, 배를 부려 무역을 하는 것 등에 국한되는 것에서 섬이라는 특수한 환경에 놓여 있던 제주 향민들의 생활상이 잘 드러난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나타나는 백성들의 곤궁함은 주로 척박한 자연환경의 탓으로 설명되고 있어 향촌사족 가사와는 뚜렷이 구별된다. 농사를 지을 땅이 넉넉하지 않은 것과 악천후로 농작물이 자랄 수 없는 것은 모두 섬이라는 지리적 여건과 관련되는 것으로, 백성들의 굶주림과 유리는 바로 이러한 자연 여건에 기인하고 있다. 이는 향촌사족 가사에서 향민이 겪는 고통을 자연환경보다 관료들의 학정과 수탈과 같은 인재(人災)의 차원에서 고발하고 있는 것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 게다가 여기에서 지적되는 향촌의 궁핍한 실정은 기아나 기근 등과 같은 사회 일반의 문제로만 인식되고 있다. 즉 이는 보편적인 사회문제일 뿐, 향촌이라는 공동체의 존립과 관련된 문제로 보고 있지 않다.

한편 향민들과 시적 화자의 관계 역시 수직적이다. 화자가 ‘수령’이라는 재상자(在上者)의 위치에서 향민들을 권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목민관의 소임인 관풍(觀風)의 차원에서 백성들의 삶을 살피고 있다. ‘巡歷 길 밧비 나서 海方도 둘러보며 풍속도 살펴 보니’는 그가 어떠한 시선으로 백성을 바라보고 있는지를 그대로 드러낸다. 이처럼 목민관으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하고 있기에 문제의 해결방식 또한 향민들을 직접 계도하는 방향으로 귀결되고 있다. 생활의 어려움을 자신이 힘써 구제하겠다는 위정자로서의 약속과 함께 백성들 또한 자신의 직분에서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하고 있기 때문이다.<sup>13)</sup> 특히 이런 어려움을 견디고 지내는 것은 온전히

13) “슬푸다 너의 艱苦 니 어이 모르리오/ 힘디로 救濟키난 官長에게 밋였스나/ 견디어

백성들의 마음에 달린 것이니 가난을 한하지 말고 도리를 다하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말에서 그가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백성들의 몫으로 돌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향민들에 대한 인식은 이운영(李運永)의 <초혼사(招魂詞)>, <순창가(淳昌歌)>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향민에 대한 하향적 시각이 강하게 드러났던 <탐라별곡>과 달리, <순창가>와 <초혼사>에서는 그러한 시각이 상당히 완화되어 있다. 또한 작품 속에 포착된 향민들은 향촌의 구성원이라기보다 일반 백성인 하층민으로서의 성격이 더욱 강하다. <초혼사>는 이운영이 금산군수로 임명되었을 때 지은 것으로, 임진왜란 때 죽은 칠백의사의 넋을 위로하고자 지은 작품이다. 군수의 지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작품에서는 목민관으로서의 의식이 거의 드러나지 않는다. 시적 화자는 대상과 한층 가까운 거리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넋시야 넋시로다 아는다 모로는다/ 무지목동(無知牧童)도 공경홀 줄 다  
아웁고/ 삼산과객(三山過客)도 사름마다 타루(墮淚)흐니/ 허다흔 튜흔열빅  
(忠魂列魄) 뉘뉘신줄 모로거니/ 자손(子孫)의 잇고 업기 알지가 뉘 잇던가/  
비가(悲歌) 일곡(一曲)을 빅양님의 고음(高吟)흐니/ 넋시로다 넋시로다 신  
막 동셔남북시라

의병장 조헌을 따라 왜적과 싸우다 금산에서 전몰한 칠백 의사들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추모는 이들의 죽음이 결코 헛되지 않았으며, 지금도 여전히 그 공을 인정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는 단지 표면상의 위로

---

지너지난 네 마음에 달였시니/ 글얼사록 惕念하야 常히 心性 保全하야/ 天恩을 닛지 말고 父子兄弟 相愛하면/ 玉皇이 구버보셔 福祿을 주시나니/ 窮困을 한치 말고 네 道理 盡心하면/ 其中에 榮華 잇셔 貧賤을 버셔나니/ 닛 時節 도라보면 그 안니 알일인가”

일 뿐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제기된다. 그 누구도 희생당한 개개인이 누구 인지는 알지 못하며, 그 자손의 유무도 모르고 있는 것에서 실상 이들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시적 화자가 부르는 노래가 슬픈 노래인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다. 여기에서는 목민관으로서의 시선이 온전히 제거되고 있으며, 개개의 소외된 영혼들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그를 위로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시적 화자와 대상과의 거리가 대폭 좁혀져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소외의 문제가 단지 개인적 관심에만 머물 뿐, 사회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문제로 부각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sup>14)</sup>

하층민의 삶에 대한 인식은 <순창가>에서 더욱 자세하게 볼 수 있다. <순창가>는 이운영이 그의 부친 이기중(李箕中)이 담양 부사로 재직하던 해인 1760년경에 지은 것으로 부친의 생일 잔치에 일어난 사건을 작품화한 것이다.<sup>15)</sup> <순창가>에는 하급관리와 기생들의 고단한 삶이 잔치와 유람 등의 호사스러운 풍류를 누리는 관료들의 삶과 뚜렷한 대비를 이루며 서술되고 있어 주목된다.

1) 도화춘식(桃花春色) 백옥안(白玉顏)이 낭낭이 성군호야/ 세마경군(細馬輕軍)으로 횡헌이 뒤를 쉰니/ 창안백발(蒼顏白髮) 화순(和順) 원님 녀랑(女郎)에게 다정호사/ 산희수곡처(山喜水谷處)의 돌쳐보기 자즈시니/ 소인은 하인(下人)이라 맡게 안기 황송호와/ 올났다가 나렸다가 나렸다가 올났다/ 삼각산(三角山) 고골 풍류(風流) 몇 번인 줄 모를로다/ 망망이 나렸다

14) 이는 향유 상황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운영은 <초혼사>를 매양 하늘이 맑고 달이 밝은 때에 기생들에게 시켜 노래하게 하였다고 한다. 이것은 그가 개인적인 향유를 목적으로 <초혼사>를 지었음을 알 수 있게 한다. 한대회, 『李運永의 歌辭研究』, 고려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1995, 22쪽.

15) 고순희, 『引誘와 諧謔의 美學-李運永의 歌辭 6편』, 『梨花語文論集』 제15집, 1997, 359쪽.

가 다시 올라 타노라니/ 석양(夕陽) 디노하의 실족(失足) 호야 너머지니/석  
각이 종횡흔디 콩티(太)즈로 잣바지니/ 팔다리도 부러지고 엽구리도 썩다르  
니/ 에혈이 황용호와 흉격(胸膈)이 퍼지압고

2) 기성이라 호는 거손 가련흔 인성이라/ 전답(田畝) 노비(奴婢)가 어디  
잇스오며/ 밭 한 줍 돈 흔 푼을 누라서 주을넉가/ 먹습고 님 습기를 제 버러  
호읍는디/ 교방습악(教坊習樂)의 오일(五日)마다 더령호고/ 세누비 빵침질  
(雙針)과 설면즈(雪面子) 소음튀기/ 관가(官家)이려 맛즈와셔 죽야(晝夜)로  
고초읍고/ 디소별성(大小別星)이 오락가락 지나갈 제/ 차모(茶母)야 슈청  
(守廳)이야 구실노 나섰는디/ 흔 벌 의복(衣服)이나 하츄케나 아니호고/ 큰  
머리 노리개를 남만치나 호노라니 / 기싱인줄 윈(怨)호더니 갖득의 설운 등  
의 운수(運數)가 고이호와 / 순스도(巡使道) 분부니여 벗보기를 금호시니/  
어러도 죽게 되고 굴머도 죽게 되여/ 이제는 홀 일 업시 죽을 줄노 아옵더니

1)과 2)는 각각 하급관리와 기녀들의 고달픈 삶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1)은 아리따운 기녀를 보고자 자꾸 돌아보는 원님의 시선에, 몸 둘 바를 모르고 말에서 내렸다 올랐다가 반복하는 하급 관리의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다. 길을 곧장 가지 못하고 이런 우스꽝스러운 행동을 반복하는 것은 다름 아니라 ‘하인(下人)’이라는 신분에 있기 때문이다. 풍광의 수려함도 제대로 보지 못한 채 상관의 눈치를 보며 분주하게 말에 오르내리던 하급관리가 마침내 말에서 떨어져 팔다리가 부러지고 크게 멍이 들고 마는 광경은 우습기보다는 비극적이다.

2)에서는 하리의 소송으로 잡혀온 기녀들이 억울함을 호소하는 부분이다. 여기에서는 하층민으로서 기생의 신산한 삶을 엿볼 수 있게 한다. 기생들은 생계가 제대로 확보되지 못한 채 여러 가지 잡역에 시달리고 있다. 끼니도 제대로 챙겨 먹기 어려운데 가무 연습, 관가의 물품 상납, 연회의

시중 등에 동원되니 그 생활이 고달프기 이를 데 없다. 그나마 생계를 이을 수단이었던 ‘벗보기’마저 금지 당해 굶어 죽을 상황에까지 이르고 있다. “어려도 죽게 되고 굶어도 죽게 되어”라는 말은 이들의 처참한 상황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

이처럼 하급관리와 기녀들의 고생스런 삶이 여과없이 거론되는 것에서 시적 화자의 이들에 대한 남다른 관심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시적 화자가 이들과 동일한 위치에 있지는 않다. 대상과의 사이에 일정 거리를 유지한 채 관찰자의 위치에서 한결같이 벗어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향민의 어려움을 전달하는 시적 화자의 목소리에는 어떠한 감정적 동조도 드러나지 않는다. 또한 이들의 어려움을 보여주지만 할 뿐 그에 대한 아무런 해결도 추구하고 있지 않다. 포착되는 국면 역시 일부 하층민의 개별적 삶의 양상에 국한된 것으로, 향촌이라는 하나의 공동체의 문제로 보지 않는다는 점에서 향촌사족 가사와 크게 구별된다. 게다가 상황을 전달하는 어조가 다분히 해학적이라 고단한 현실에 대한 비판적 시선이 크게 상쇄되고 있다. 상관들을 수행하다 사고를 당한 하리가 그 책임을 기생들에게 물어 그들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는 사건의 황당함과 함께, 이에 대한 전달 어조 역시 자못 익살스러워 현실 고발의 성격이 크게 약화되고 있기 때문이다.<sup>16)</sup> 이는 결국 시적 화자의 의도가 현실 비판에 놓여 있지 않음을 의미한다. 즉 작자의 관심이 특이한 사건의 전달에 더욱 기울어져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경향사족 가사에서 향민의 삶에 대한 언급이나 인식은 부분적으로만 나타나고 있으며, 포착된 문제 역시 사회 일반의 문제로만 다루

16) 다음의 구절들을 그 한 예로 들 수 있다. “석각이 종횡흔디 퉁티(太)즈로 잣바지니”, “곰곰 안자 싱각하니 이거시 뉘탓신고/ 장청셔 비헝헝던 기싱들의 탓시로다/ 네 쇠뿔이 아니런들 너 담이 문혀지랴”

어저 향촌이라는 특정 공동체의 문제로까지 인식되지 않고 있다. 또한 향민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수직적인 경향이 강하다. 목민관으로서의 입장이 확고하거나 혹은 이에서 벗어나더라도 관찰자의 위치에서 바라봄으로써 향민들과의 간격을 분명하게 유지하고 있다.

### Ⅲ. 18세기 경향사족간 삶의 거리와 그 의미

앞서 살펴 보았듯이 향촌사족들은 향촌의 문제를 특정 유형의 가사를 통해 단독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특히 이를 일반적인 사회문제가 아니라 바로 향촌 공동체의 문제라는 향촌의식을 기반으로 그려내고 있다. 또한 향민들의 입장에서 향촌의 피폐한 현실을 고발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백성들과 거의 동일한 위치에까지 작자의 의식이 나아가고 있다. 반면에, 경향사족 가사에서는 향촌사회에 대한 관심이나 향촌 문제에 대한 인식 등을 독립적으로 다룬 작품이 창작되지 않고 있다. 향민들의 삶은 부분적으로 포착되고 있으며, 이 경우에도 향촌의 구성원으로서보다는 하층민이라는 일반 백성으로서의 시선이 우선하고 있다. 또한 치자(治者)나 관찰자의 눈으로 바라본다는 점에서 하향적인 시선이 여전히 강하다.

작품에서 확인되는 이러한 차이는 도대체 어디에서 기인하는 것일까? 이는 무엇보다 경향사족 간의 삶의 토대가 현저히 달랐던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서로 다른 환경 속에서 삶을 영위하고 있었기에, 그들의 의식도, 관심대상도 자연스럽게 다를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향촌사족들의 향촌에 대한 지대한 관심은 이에 남다른 애착을 가져서 가능했었던 것이 아니었다. 바로 그들의 존립과 밀착된 문제였기 때문이었다. 출사가 차단된 향촌사족들에게 향촌은 사회적 지도자로서의 위상과 책임을 실현할 수 있

는 유일한 곳이었다.<sup>17)</sup>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을 지탱해나가는 중요한 거주기반이라는 점에서 향촌의 상황은 자신들의 존재와 직결되는 것이었다. 특히 당시 향촌에서는 상품경제의 발달로 농사를 짓는 대신 도시로 돈을 벌러 가거나, 기근, 수해 등의 각종 재해와 관료들의 수탈로 인해 농민들이 향촌에서 이탈해 감으로써 향촌사회의 해체라는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었다. 이는 곧 향촌사족들의 기반 자체가 와해되는 것으로 향촌사족들에게 심각한 위기로 느껴질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향촌사족들은 사회적 지도자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한편, 그들의 삶의 기반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향촌의 안정 도모에 온갖 노력을 기울이게 된다. 가사에서는 그 노력이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하나는 향민들에 대한 교화이며 다른 하나는 피폐한 향촌현실의 고발과 개선의 촉구이다. 향민들에 대한 교화는 특히 농사의 권장으로 나타나고 있다. 농업은 향민들의 기본적인 생계수단이라는 점에서도 중요하지만, 향촌사족들의 경제적 기반인 동시에 향촌사회의 궁극적인 토대라는 차원에서 더욱 무엇보다 우선되는 것이었다. 따라서 향촌사족들은 향민들에게 농사의 중요성을 주지시키고 농사에서 얻는 만족감과 풍요로운 결실을 상기시킴으로써 농사에 지속적으로 종사하게 하려 하였다. 김익의 가사 <권농가>는 향촌사족들의 이러한 입장을 잘 보여준다. 농민들이 농업에 충실히 종사함으로써 집안이 안정되는 것은 물론이요, 국가의 안정까지 이룰 수 있음을 강하게 설파하고 있다. 국가의 안정이 농업에 있다는 의식은 향촌사족들의 농본(農本)의식을 반영하는 동시에 조선의 기본 이념과도 일

17) 향촌사족들이 민란의 주도세력이 될 수 있었던 요인 중 하나로 이들의 사회적 책임감을 지적하고 있다는 사실은 향촌사족들의 사회적 지도자로서의 자의식을 확인시켜 준다. “그렇다면 이들의 지도력을 담보해 주는 것은 무엇인가. 우선 이들은 유교적 교양에 의해 배가된 지적 능력을 가지고 도덕적 사명감에 기초를 둔 사회적 실천의 지향성을 지녔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오영교, 앞의 책, 289쪽.

치하는 것이다. 이처럼 농사의 중요성과 농민으로서의 직분을 상기시켜 농업에 지속적으로 종사하게 하려한 것에서, 교화를 통해 향민들의 동요와 유리를 막고 향촌을 안정시키고자 한 향촌사족들의 의지를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교화만으로 향촌의 동요를 막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다. 향민에게 부당한 수탈과 폭정을 가하는 집권층이 개선되지 않는 한 향민들의 향촌 이탈은 멈출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안으로는 교화를 계속 펼쳐 나가는 한편, 향촌의 피폐한 사정을 적나라하게 고발하고 그 문제점을 지적하여 향촌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한층 적극적인 태도도 병행하게 된다. <임계탄>, <갑민가>, <합강정선유가> 등 일련의 현실비판 가사들은 바로 그러한 노력의 산물이라 할 수 있다.<sup>18)</sup> 향민들의 고통이 수취제도의 모순과 집권층의 부패에 있음을 문제 삼음으로써 제도적인 차원에서 해결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국문 장르인 가사를 활용함으로써 그 향유대상을 상층에 국한하지 않고 하층에까지 자연스럽게 확장시키고 있다.

한편 향촌사족들이 농촌 중심의 향촌을 삶의 터전으로 삼았던 것과는 달리, 경화사족들은 상공업중심의 경화를 그 기반으로 삼고 있어 삶의 토대에서부터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 17세기 후반 이래 서울은 대동법과 금속화폐의 전국적 유통을 계기로 노동력의 상품화가 촉진됨으로써 상업도시로 전환할 수 있는 사회 경제적 토대가 마련되고 있었다.<sup>19)</sup> 뿐만 아니

18) 현실비판가사의 연구 초기 단계에서는 그 작자층을 몰락 사족으로 추정하였고, 19세기에 작품이 더 활발하게 지어진다는 점을 들어 19세기 가사로 분류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18세기 전기에 위백규의 부친 위문덕의 창작으로 추정되는 <임계탄>이 발굴됨으로써 이에 대한 재고가 불가피해졌다. <임계탄>의 존재는 현실비판 가사가 18세기 초반부터 지어졌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작자층 역시 경제적으로 몰락한 사족에만 국한시킬 수 없음을 분명히 말해 주기 때문이다.

라 경화에서는 사상적으로나 문화적으로도 향촌과 현저히 구별되는 분위기를 조성해 가고 있었다. 학풍은 물론이거니와 문화적 취향 면에서도 도시적 삶을 기반으로 한 독특한 풍조가 형성되고 있었다.

결국 도시, 향촌에서 산다는 것은 지역적 의미를 뛰어넘어 문화적 경계선을 달리하는 것과 동일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경화사족들에게는 향촌에서의 삶보다 경화에서의 삶이 우위적인 가치를 점하고 있었다. 이는 18세기 경화사족의 일원이었던 박제가의 글에서도 엿볼 수 있다. 서울이 정치, 교화의 본원지, 그리고 인물과 부와 모든 문화의 집중지이며, 그들이 성장한 고향으로, 그 길이 밭에 익숙하고, 풍경이 꿈자리에도 보여 차마 버리고 갈 수 없다는 그의 말은<sup>20)</sup> 서울이 당시 경화사족들에게 어떠한 의미를 지녔던 것인지를 잘 보여준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경화사족들은 서울생활을 하는 가운데 서울을 떠나서 살 수 없는 도시적 체질이 형성되고 있었으며, 도시적 생활상은 소비적인 생활로 일관되는 경우가 많았다.<sup>21)</sup> 이것은 곧 경화사족들의 삶이 향촌에서의 농업 생산활동과 철저히 유리되어 있었으며, 그로 인해 향촌이 그들의 관심 대상이 되는 것 자체가 상당히 힘들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박지원, 박제가 등의 지식인들이 사의 학문은 농공상의 일을 겸하여야 한다며 경제지학과 명물도수지학으로까지 학문적 관심을 넓혀갔던 것에서, 경향의 사회적 분기를 극복하려 했던 시도도 읽어낼 수 있다. 그

19) 고동환, 조선후기 서울의 도시구조 변화와 도시문화, 『역사와 도시』, 서울대 출판부, 2000, 35쪽.

20) 況王城 治化之所出 四方之所輻湊 其仕宦閥閱之族 人物樓臺舟車貨財之盛 與夫親戚友朋文獻之微 悉聚於此 而況吾與子生長之地 而步履慣於阡陌 風景存乎夢寐 則顧何忍一朝棄之而去 朴齊家, <送李定載往公州序>, 『貞蕤集』卷 1. 이우성, 18세기 서울의 都市的 樣相, 『韓國의 歷史上』, 창작과 비평사, 1982, 51쪽, 재인용.

21) 유봉학, 경화사족의 대두와 학문적 변화, 『정조대왕의 꿈』, 신구문화사, 2001, 125쪽.

러나 그다지 큰 성과를 거두지 못 하였으며, 이들의 관심도 대도시의 문제에 보다 기울어져 있는 경향을 보인다는 점에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sup>22)</sup> 경화사족들이 향촌에 무관심했음은 1799년 정조가 농업을 진작하기 위해 반포했던 윤음에 응해 농서(農書)나 농정소(農政疎)를 바친 사람 중 대부분이 향촌사족들이며 전직자나 현직자 등 관리신분의 소유자가 적었던 사실에서도 거듭 확인된다.<sup>23)</sup> 특히 전체 지원자 중 실제 행정에 힘을 발휘할 수 있었던 현직 관료들의 지원 비율은 현저히 낮게 나타나고 있다. 현직 관료들의 저조한 참여에 대한 정조의 질책에 이들은 자신들은 농사의 방법에 대해 잘 알지 못하다는 말로 변명하고 있다.<sup>24)</sup> 이것은 당시 관료로 지방에 나가있었던 경화사족들의 대다수가 농업에 대한 실무 경험이 거의 없었으며 이에 대한 관심도 부족했었음을 잘 보여준다.<sup>25)</sup>

경화사족들이 서울을 떠나 향촌의 상황을 목도할 기회는 지방으로 유람을 떠나거나 유배를 가거나 수령으로서 부임했을 때 등으로 들 수 있다. 앞서 살펴본, 정언유나 이운영의 작품들이 모두 지방관으로서의 부임이나 여행 등의 경로로 지어진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다. 그러나 현실비판 가사와 같은 새로운 유형의 창출이 이루어지지 않고 기존의 유형을 통해

22) 앞의 책, 156쪽.

23) 정조의 윤음에 응지한 정소자들의 신분직역을 분류해 보았을 때 출사하지 않은 사족들의 수가 정소자 총 69명 중 50명으로 압도적인 수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지역별로 보았을 때 농업생활과 더욱 긴밀히 밀착되어 있었던 호남지방에서 정소가 두드러지게 많이 이루어졌다. 김용섭(1995), 18世紀 農村知識人의 農業觀-正朝末年의 應旨進農書의 分析, 『朝鮮後期農業史研究』 I, 일조각, 7-11쪽.

24) 위의 논문, 11쪽.

25) 김용섭은 현직 관료들의 정소가 저조했던 것은 그 부문이 농업이었던 것에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다른 때의 求言敎에서는 높은 직위의 政治人들이 허다하게 呈疏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는데, 이번에는 그렇지가 못하였다. 이 시기의 社會나 朝廷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政治人은 한 사람도 없었다. 그것은 아마도 이번 求言이 求農書라고 하는 特殊問題인 데 緣由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위의 논문, 12쪽.

향민들의 삶이 부분적으로 다루어지는 것에서 알 수 있듯, 비록 향촌에 간다 하더라도 향촌의 실정은 그들의 적극적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다. 혹 향촌의 모순을 포착, 이에 대한 비판을 한다고 해도 이는 가사가 아닌 한시 장르로 대신하고 있다.

경화사족 가사에 향촌의 실정이 전폭적으로 수용되기 어려웠던 것은 경화사족들이 기행가사나 유배가사와 같은 기존의 창작 관행을 따랐던 것과 관련이 깊다. 유배가사에서는 작자의 유배지였던 향촌의 모습이 부분적으로 포착되고 있다. 그러나 향민보다는 이들이 겪는 향촌의 궁박한 생활이 주로 형상화된다는 사실에서 충분히 짐작되듯, 그 궁극적 의미가 유배를 당한 사람의 고초를 부각시키는 것에 있다는 점에서 향촌의 실정이 제대로 전달되기 어렵다. 한편 기행가사는 유람과 관직부임 등으로 그 여행 동기가 양분된다. 이 때 유람을 목적으로 한 기행가사에서는 풍물이나 승경의 아름다움을 묘사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어 향촌의 부정적 현실이 거론될 여지가 보이지 않는다. 그에 비해 외직에 관리로 부임해서 이루어지는 기행의 경우, 관풍을 살피는 것이 수령의 임무라는 점에서 향촌의 현실이 작품 속에 개입될 가능성이 충분히 제기된다. 정언유의 <탐라별곡>이 바로 이러한 경우에 속한다.

그렇지만 이 경우에도 한 지역을 풍영하는 성격으로 명현의 고적을 환기하고 정표적(旌表的) 차원에서 효, 열을 드러내어 한 지역을 가송(歌頌)하는 제영적(題詠的) 성격<sup>26)</sup>을 띠고 있다는 점에서 향촌의 실상이 온전히 다루어지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김재찬(金載瓚)의 <기성별곡(箕城別曲)>은 이러한 면모를 그대로 보여준다. <기성별곡>은 김재찬이 평양에 목민관으로 부임하면서 지은 것으로, 평양의 유적 곳곳을 돌아보고 그에 대한 감회를 서술한 작품이다. 여기에서는 평양성의 지세에 대한 상세한 설명

26) 유정선, 『18·19세기 기행가사 연구』, 역락, 2007, 30쪽.

과 그 주변의 경물과 사적에 대한 서술이 중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곳 백성들의 실정에 대한 언급은 누락되고 있어 유람가사와 그다지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sup>27)</sup>

게다가 경화사족들에게는 현실 모순에 대한 비판에는 가사보다는 한시 장르가 더욱 선호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시에서는 애민시의 전통이 일찍부터 마련되어 있었기에, 사대부들은 백성들의 고통을 한시 속에 지속적으로 담아내 왔었다. 조선후기에는 이러한 동향이 더욱 활발하게 나타나는데, 군정, 양역, 공물이나 진상, 균역법이나 삼정과 같은 수취제도의 모순, 신분제도의 폐해등과 같은 사회구조적인 모순, 상품화폐경제의 진전과 사회변동에 따르는 모습과 그 역기능까지 집중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한 예로 정약용의 <애절양(哀絶陽)>은 군정의 병폐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대표적 작품이라 할 수 있다.<sup>28)</sup> 이처럼 한시가 가사보다 선호되었다는 사실은 향촌사족들과 달리, 이들이 향민들의 향유를 전혀 염두에 두지 않았음을 말해준다. 즉 처음부터 상층인 내에서의 소통을 목적으로 하였기에, 굳이 현실비판 가사와 같은 유형을 가사에서 따로 마련할 필요가 없이 기존의 한시 장르를 적극 활용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27) 그 일부분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홍망이 자취 업고 풍왕이 의구하니/ 옛 남군 도읍 터히 고적만 남은 있다/ 옛 말습 그만 하고 명승을 츠즈리르/ 더동문 드리다라 런평경 올라가니/ 반공의 노는 첨하/ 학의 등의 명에 하고/ 십이층 삭인 난간 그림 속의 바이는 디/ 스양의 발을 짓고 취안을 드러보니/ 장강이 깊 갓하여 휴턴과 한 빗치 오/ 빅스장 긴 슈폴의 저녁니 즈즈졌다/ 풍연이 한이 업고 강산이 무궁하니/ 빅니 누덕 에 분첩이 조요하다” 강전섭(1989), 海石 金載瓚의 箕城別曲에 對하여, 『동양학』 제19집, 단국대 동양학연구소.

28) 진재교, 이조 후기 현실주의 시문학의 다양한 발전, 『이조 후기 한시의 사회사』, 소명출판, 2001, 246쪽.

#### IV. 마무리하며

지금까지 향촌문제를 중심으로 18세기 향촌사족 가사와 경화사족 가사를 대비해 보고, 작품에서 보이는 차이가 어디에서 기인하는지 고찰해 보았다. 향촌사족 가사에서는 <임계탄>, <갑민가>, <합강정선유가>와 같은 일련의 현실비판가사를 통해 향촌문제를 단독적으로 다루고 있다. 향촌의 피폐한 현실을 적나라하게 고발하면서, 향민의 빈곤과 향촌의 이탈이 향민 개개인의 노력만으로는 결코 극복될 수 없는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즉 향촌이 안고 있는 문제는 개인적 차원이 아닌 제도적인 차원에서 해결되어야 할 것임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또한 향촌의 실태를 향민들의 입장에서 알리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을 대변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는 향촌사족들의 수평지향적인 대민의식을 보여준다.

반면 경화사족 가사에서는 단독의 유형을 마련하지 못한 채 기존 유형의 계승을 통해 향민들의 문제를 언급하고 있다. 포착된 문제들도 향촌 공동체의 문제로서가 아닌 일개인의 것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해결도 매우 소극적이다. 궁극적인 해결을 개인의 몫으로 돌리거나 아예 그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향민에 대한 시선 역시 하향적인 성향이 강하다. 목민관으로서의 위치를 확고하게 유지하거나 이를 벗어난다고 해도 일정 거리를 분명히 유지함으로써 향민들과는 그 입장을 달리하고 있다.

향촌사족과 경화사족의 가사가 각각 이러한 특성을 보이는 것은 이들의 삶의 토대가 확연히 달랐던 것과 긴밀한 관련이 있다. 삶의 환경이 철저히 달랐기에 관심 대상은 물론, 그 의식에도 거리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전통적인 농업 중심의 경제구조 속에 있었던 향촌사족들에게 향촌은 자신들의 사회적 지도자로서의 책임을 실천해 나가는 공간인 동시에 유일

한 거주기반이었다. 그러므로 향촌의 상황은 그들에게 절대적 관심의 대상일 수밖에 없었다. 당시 각종 재해와 관료들의 수탈로 향민들이 향촌에서 이탈해 감으로써 향촌사회의 해체라는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었다. 이에 향촌사족들은 향촌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각별한 노력을 펼치게 되는데 현실비판 가사의 창작은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해석될 수 있다. 즉 교화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으며, 현실적인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져야 향촌이 안정될 수 있다는 인식 아래 창작된 것이다.

농업이 삶의 기반이었던 향촌사족과 달리, 경화사족은 상공업 중심의 경화에서 삶을 영위하는 가운데 사상적으로나 문화적으로도 상당히 다른 분위기에 있었다. 이들에게 경화에서의 삶은 지역적 의미를 뛰어넘는 것으로, 우위적인 가치를 점하고 있었다. 따라서 경화사족들은 향촌에서의 농업 생산활동에서 유리될 수밖에 없었으며, 이는 곧 향촌 자체가 그들의 관심 대상이 되기 어려웠음을 알 수 있게 한다. 이들이 경화를 떠나 향촌의 상황을 목도할 기회는 지방으로의 유람이나 관직 부임, 유배 등의 상황에 처했을 때 가질 수 있었다. 그러나 새로운 유형을 마련하지 못하고 기존 유형을 답습하는 것에서 가늠되듯, 향촌에 간다하더라도 그곳의 실정이 그들에게 그다지 적극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는 기존의 창작 관행을 유지했던 것과 이미 한시 속에 애민시의 전통이 확립되어 있었기에 향촌의 실정 고발에는 한시를 더욱 선호했었던 사실이 크게 자리하고 있다.

이처럼 18세기 사대부 가사 속에서 경화사족과 향촌사족들은 향촌문제에 있어 현격한 의식의 차이를 보인다. 바로 여기에서 19세기 민란에서 나타났던 사족층의 동향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향촌사족들이 향민들의 위치에 서서 향촌의 문제가 제도적인 차원에서 해결되어야 함을 지적하고 있는 것에 비해, 경화사족들이 여전히 재상자(在上者)의 위치를 유지하며

문제의 범주도 개인적 차원에 국한시켜 바라보고 있는, 18세기 사대부 가사 내의 대립적 국면은 상황이 개선되지 않을 때 이들이 각각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갈지 충분히 예고해 주고 있기 때문이다. 19세기에 이르면 향촌사족들은 현실비판 가사의 창작에서 보였던 문제 인식을 한층 적극적으로 표출하고 있다. 바로 민란에 직접 가담하는 것으로 이를 행동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난의 주도자로 이들이 요구했던 것이 관리의 탐학 금지와 삼정문란의 시정이었다는 것, 그리고 그들의 이념이 ‘보국위민(輔國爲民)’과 같은 유가 사상 안에 머물며 체제의 부정에까지 나아가고 있지 않다는 것<sup>29)</sup> 등은 모두 현실비판 가사의 지향점과 그대로 일치한다. 한편 19세기의 중앙의 경화사족들이 민란의 원인이 삼정문란에 있음을 수개월이 지나서야 파악할 수 있었던 것 역시 18세기 사족들의 동향과 연결 지을 때 한층 수월하게 이해된다. 향촌에 대한 경험이 부족한 가운데, 향촌의 문제 역시 제도적인 차원으로써 바라보지 못했던 기존의 경향이 지속되고 있었기에 실제의 사태 파악이 이렇게 더딜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경화와 향촌의 단절이 19세기 세도집권기에 더욱 심화되었던 것도 이러한 결과를 초래하는 데 일조했음은 물론이다.

#### 참고문헌

- 강전섭, 「海石 金載瓚의 『箕城別曲』에 대하여」, 『동양학』 제19집, 단국대 동양학연구소, 1989, pp.163-186.
- 고동환, 「조선후기 서울의 도시구조 변화와 도시문화」, 『역사와 도시』, 서울대 출판부, 2000, pp.3-37.
- 고석규, 『19세기 조선의 향촌사회 연구』,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8, pp.1-411.
- 고순희, 「현실비판가사 연구」, 이화여대 박사논문, 1990, pp.1-162.
- 고순희, 「引誘와 諧謔의 美學-李運永의 歌辭 6편」, 『梨花語文論集』 제15집, 1997,

29) 오영교, 앞의 책, 291쪽.

pp.351-383.

- 고순희, 「민란과 失傳 현실비판가사」, 『한국고전연구』 5집, 1999, pp. 235-267.
- 고순희, 「〈합강정가〉의 작품세계와 역사적 성격」, 『비교한국학』 6집, 국제비교한국학회, 2000, pp.123-145.
- 김용섭, 「18世紀 農村知識人의 農業觀-正朝末年의 應旨進農書의 分析」, 『朝鮮後期農業史研究』 1, 일조각, 1995, pp.3-77.
- 김용찬, 「『갑민가』의 주제에 대한 재검토」, 『어문논집』 33집, 민족어문학회, 1994, pp. 309-336.
- 소재영, 「『諺詞』研究」, 『民族文化研究』 제21호, 1988, pp.27-90.
- 안혜진, 「18세기 향촌사족 가사 연구」, 이화여대 박사논문, 2005, pp.1-248.
- 오영교, 『조선후기 사회사 연구』, 혜안, 1993, pp.5- 373.
- 유봉학, 「경화사족의 대두와 학문적 변화」, 『정조대왕의 꿈』, 신구문화사, 2001, pp.113-127.
- 유정선, 『18·19세기 기행가사 연구』, 역락, 2007, pp.11-310.
- 윤성근, 「〈合江亭歌研究〉」, 『어문학』 18호, 한국어문학회, 1968, pp.83-106.
- 윤치부, 「〈耽羅別曲〉의 구성과 표현」, 『제주교육대학교 논문집』 제24집, pp.45-60.
- 이상보, 『18세기 가사전집』, 민속원, 1991, pp. 83-106.
- 이우성, 「18세기 서울의 都市의 樣相」, 『韓國의 歷史上』, 창작과 비평사, 1982, pp. 26-64.
- 이형대, 「18세기 전반의 농민현실과 ‘임계탄」, 『민족문학사연구』 22호, 민족문학사학회, 2003, pp.34-57.
- 이희권, 『朝鮮後期 地方統治行政 研究』, 집문당, 1999, pp.3-349.
- 정홍모, 「향산별곡을 통해 본 19세기 초 민란 가사의 한 양상」, 『한국시가연구』 창간호, 한국시가학회, 1997, pp.493-513.
- 진재교, 『이조 후기 한시의 사회사』, 소명출판, 2001, pp.1-552.
- 차장섭, 『朝鮮後期閩閩研究』, 일조각, 1997, pp.1-354.
- 한대희, 「李運永의 歌辭研究」, 고려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1995, pp.1-104.

ABSTRACT

Difference between Hyangchon-sajok and Kyungwa-sajok in  
Consciousness of Hyangchon through Sadaebu Gasa in the 18th century

Ahn, Hye-Jin

This essay aims to examine difference between Hyangchon-sajok and Kyungwa-sajok in consciousness of Hyangchon through Sadaebu Gasa in the 18th century.

Hyangchon-sajok Gasa focused on social problems in Hyangchon. It depicted the miserable situations of people who suffered from tax system and pointed out the solution of that had to be suggested in System dimension. Hyangchon-sajok felt the same pain of people in Hyangchon and spoke for them.

Conversely, Kyungwa-sajok used the existing types of Gasa and described pain of people in Hyangchon just in part. Furthermore they recognized it as not social but individual problem. They looked at people from official positions or kept a certain distance from them.

The differences between Hyangchon-sajo and Kyungwa-sajok in consciousness were caused by the different basis of life. Their different social, political, economic and cultural situation brought a remarkable contrast in Gasa.

**Ke Words** Hyangchon-sajok, Kyungwa-sajok, Hyangchon, consciousness of people, basis of life

논문투고일 : 2007. 3. 30

심사완료일 : 2007. 4. 20

게재확정일 : 2007. 5. 4